

## 바이오 연구 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거래의 장 열린다!

- 「제24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6」 개막
-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정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일(수) 「제24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6」이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개최되어 온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은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 거래의 장으로,

대학·출연연·벤처·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와 기업의 수요를 연결시켜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하는 행사이다.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본 행사는 2017년부터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바이오 분야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해 오고 있다.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국내 산·학·연 16개 기관으로 구성

24회째를 맞는 올해 포럼은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투자기관, 정부 및 지자체 등 630여 개 기관/기업 및 관계자 2,100여 명이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한자리에 모여 유망기술과 파이프라인을 공유하고 기술이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자들은 사전 온라인 매칭을 통해 발굴된 유망 기술을 대상으로 1:1 파트너링 미팅, 투자상담, 기술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인터비즈 포럼은 연구자와 기업, 투자자를 연결해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라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 성과의 창출을 넘어 기술이전과 사업화, 투자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한 인터비즈 포럼은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유망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핵심 무대”라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연구개발정책실 첨단바이오기술과	책임자 담당자
관련 기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담당자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7.1(수) ~ 7.3(금) /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
- (주관/후원)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15개 기관 /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 등

□ 개막식 및 주요 프로그램(안)

- 개막식(7.1(수), 2F 아일랜드볼룸)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1:20~12:40 ('80)	<b>오찬 간담회</b>	
	▶ 인터비즈 포럼 소개 및 성과 브리핑 등	
12:50~13:30 ('40)	<b>개막식</b>	
	▶ 개회사	신약개발연구조합 김정진 이사장
	▶ 축사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 및 위성곤 도지사, 문대림 국회의원 등
13:30~	▶ 행사소개 등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본부장
13:30~	이동 및 행사 참관	

○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 간		1일차 / 7.1(수)		2일차 / 7.2(목)		3일차 / 7.3(금)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개회		아일랜드볼룸						
①프리젠테이션 & IR Section		On-Line						
②파트너링&투자 Section		아일랜드볼룸, 스톤홀, 윈드홀, Meeting Zone						
③세미나 Section						아일랜드볼룸		
④컨설팅 Section		1F Consulting Zone, 2F Meeting Zone						
⑤포스터 Section		2F Poster Zone						
InterBiz Networking		Outdoor		Outdoor				
폐회								아일랜드볼룸

- ① 참가기관 정보 및 제안 기술/아이템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사전 검토
- ② 사전 검토 후 협력 희망 기관, 기술 테마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파트너링 실시
- ③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 ④ 기술이전, 특허/법률, R&D 지원, 투자 등 분야별 컨설팅 실시
- ⑤ 제안 기술/아이템에 관한 포스터 전시를 통한 참여기업(기관)의 관심 유도